



심 대 평
충청남도지사

창 간 축 사

21 세기는 정보화 사회·조산업시대가 될 것입니다.

정보와 지식, 기술이 힘과 부의 원천이 되고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다원화된 사회가 열릴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계속에서 우리는 치열한

경쟁시대에 직면해 있고, 앞으로 지방화시대 정착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그동안 소외되어 왔다고 생각하는 지역 개발부문에 있어 보다 활기찬 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민들께서도 지금보다는 한단계 더높은 『삶의 질 향유』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의 개발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역개발에 있어 장기적인 이상은 늘 현실적인 과제와 상충되고, 개발과 환경보전은 서로 상반되는 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전체와 부분, 보편성과 특수성, 일반성과 전문성 등도 함께 추구해야 할 상반된 방향들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켜 적정한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는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부여된 숙제들입니다.

90년대 들어 우리 충남은 지역개발에 있어 도민들께서 희망과 기대를 가져도 좋을만큼 대내외적 여건이 크게 호전 되었습니다.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함께 대단위 국가공단 개발, 국내 굴지 기업들의 공장입지 등으로 활기찬 미래의 고장이 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역개발의 이익은 지역사회와 도민들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충남지방정부의 「4대 권역별 개발계획」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우리의 것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함으로써,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적 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이러한 도민들의 뜻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설립된 전문연구기관입니다.

최신의 경영기법을 개발

하고,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도민들께 소상히 소개하고 알리는 『열린충남』이라는 연구논문지를 금번에 발행하게 된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입니다.

새로운 충남시대를 열기 위한 가치높은 전문 연구지로서 평가받고 도민들로 부터 사랑받는 『열린충남』이 될 수 있도록 알찬 성장과 정진을 기대합니다. 

